

한국 학생운동의 새로운 모색

거대담론과 생활정치가 조화된 학생운동을 바란다

정 철 희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



1

한국의 학생운동은 일제 이후 반제국주의, 반독재, 통일을 위해 오랜 투쟁의 족적을 남기고 있다. 특히 지금 우리가 향유하는 민주 제도를 이룩하는 데 군사 독재하에서의 학생운동의 역할은 심대한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 한총련의 고문치사 사건 등을 계기로 학생운동을 바라보는 일반의 시선이 굵지 않은 것만은 사실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현재의 학생운동을 진단해 보고 그 진로를 제안해 본다.

학생운동의 위기는 단지 한총련의 '과격성' 때문만은 아니다. 주지하다시피, '80년대 중반 이후 학생운동은 한국사회의 계급모순을 강조하는 PD 계열과 민족모순에 중점을 두는 NL 계열로 양분되었으며 PD 계열은 동구와 소련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 NL 계열은 김일성 사후 크게 약화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국내적으로도 권위주의 시대와 같은 민주와 반민주의 선명한 대결 전선이 사라진 점, 체제의 유연성의 증가로 혁명보다는 체제내 개혁이 가능하게끔 보여지는 점도 '80년대 스타일의 학생운동의 호소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6월항쟁 이후 제도적 수준의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면서 학생운동의 주류는 변화해야 할 방향과 역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보인다. 극도의 탄압상태에서 필요했던 집권적 학생조직을 분권화하고 생활정치적 쟁점이 부각되는 상태에서 여러 사회적 쟁점을 수용할 태세를 갖추는 것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러나 점점 중앙조직이 지역의 학생회 조직까지 완전히 장악하는 관료제 형태를 강화하였으며, 생활정치 요구의 중요성에 대한 깨달음도 부족한 채 6월항쟁 이전의 민족민주운동의 구호를 외치는 데 주력하여 어느 때보다도 학생들의 광범한 지지를 받으면서도 학생운동이 새로운 방향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한총련의 탄생은 위에서 언급한 학생운동의 중앙집권화와 패권투쟁의 소산으로 볼 수 있다. 한총련의 전신인 전국 대학생 총연합이 협의체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맹적 수준', 즉 보다 중앙집권화된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NL 계열 학생들의 상황 인식에 의해 전국의 총학생회를 일사불란하게 파악하고 명령할 수 있는 한총련이 출범했던 것이다.

한총련의 이와 같은 조직 형태는 민족해방이라는 거대담론을 혁명적 방법으로 실현하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간주되었을 것이다. 중앙집권화의 필요성 이외에도 1992년 총학생회 선거에서 PD 계열이 약진하는 상태 등에 의해 NL 계열에서 자신들의 노선의 주도권을 위해 한총련을 만들었다. 출범식 과정에서 양 계열의 격렬한 몸싸움은 바로 이런 패권 전략에 기인한 것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 학생운동이 그 체질 개선의 방안으로서 학생조직 자체의 민주적 운영과 아울러 환경, 여성, 지역 등의 생활정치적 쟁점에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소위 서구의 신사회운동에서 공산당의 관료제적이고 비민주적 운영을 비판하면서 사회운동 조직 자체의 민주화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는 조직이 비민주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모순이다. 권위주의 정권 아래에서 나름대로 존재 이유가 있었던 상명하달식의 사소통망과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점조직 형태의 접촉형태에서 벗어나 학생대중의 의사가 자유롭게 반영되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조직 내의 민주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총련에서 보이는 극도의 중앙집권적 조직을 탈중심화시키는 것이 필요했다. '80년대 초에는 학생운동의 조직적 기반이 총학생회와 더불어 동아리, 단과대학 및 과 학회, 교외 동아리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80년대 중반 이후 운동의 통일성을 위해 총학생회로 학생운동 조직을 통폐합하는 현상이 일어났다. 그러나 다양한 생활정치적 쟁점과 다양한 개성과 기호를 가진 학생들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학생운동 조직의 탈중심화와 다변화가 요청되었다.

언론의 보도에 의해 한총련만이 크게 부각되고 있지만, 학생운동권 내부에서 전혁변화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일군의 학생들은 변화된 한국사회의 새로운

해석을 위해 이탈리아 맑스주의자인 그람시의 시민사회론을 도입하기도 했으며, 이에 대항하기 위해 알튀세의 사회이론을 공부하기도 했다. 또한 소수이지만 맑스주의의 종말론과 경제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포스트맑스주의를 검토하는 시도도 있었다. 아울러 '92년 진보학생연대라는 그룹은 주체사상의 무비판적 적용과 국가독점자본주의라는 시각에 거리를 두고 NL과 PD 노선의 통합을 주장하는 한편, 한국사회에 적합한 이론의 모색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움직임 이외에도, 경제정의 실천연합 소속 학생단체가 학생들에게 호응을 얻는 등 시민운동 혹은 신사회운동의 쟁점에 따른 학생운동의 결집이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일부이지만, 학생운동의 새로운 움직임 속에 학생운동의 새로운 방향이 이미 배태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바람직한 학생운동이 상이 쟁점—특화적인 환경, 여성, 성 문제 등의 운동—만을 지향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사회는 식민, 분단, 냉전 등을 거치는 불행한 근대화 과정 속에서 민족화해 혹은 계급갈등의 해소와 같은 거대담론을 숙제로 짊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학생운동이 서구의 신사회운동만을 따를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사회의 다양한 욕구 분출을 외면한 채 민족과 계급해방이라는 쟁점만 고집하면서 다른 운동세력을 배제하려는 자세는 학생운동의 고립화를 낳을 뿐 아니라 거대담론의 실현을 위해서도 불필요한 태도일 것이다. 물론 지금의 상황에서 하나의 학생운동 그룹이 전체 학생운동 분파의 동의를 끌어낸다는 것이 가능해 보이지도 않는다.

거대담론과 생활정치 쟁점의 조화를 위

해서는 선협적인 주체의 설정과 완벽하게 기안된 변혁의 청사진을 고집하는 태도를 지양해야 할 것이다. 통일성이 깨진다는 두려움을 버리고 다양성이 지리멸렬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필자의 이러한 주장은 '80년대의 민족민주운동을 계승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낯설고 당혹스럽게 보일 것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살펴보아도 사회운동이 하나의 주체 세력에 의해 처음부터 끝까지 영도되거나 미리 설정된 궤도를 따라 애초에 그리던 유토피아에 도달했던 예는 거의 없었다. 사회운동의 방향은 다양한 사회적 주체가 이합집산하는 과정에서 반전을 거듭하며, 그 정체성도 경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여러 사회운동 세력간의 연대도 미리 주어지거나 어떤 지도 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운동과정 속에서 서로간의 쟁점의 혼용이 이루어지면서 가능해지는 것이다.

환경운동 혹은 여성운동이 학생운동이 추구했던 해방의 정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별 중요한 관계가 없다는 것이 기존의 학생운동 주류의 판단일 것이다. 그러나 환경운동과 같은 하나의 사회운동의 정치적 의미는 처음부터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회 세력과 어떠한 연대를 이루어내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 운동이 진보적이나 개량적이나 등은 선협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역사 연구에 비추어 보아도 배링턴 무어의 주장처럼 농민은 때로는 가장 급진세력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가장 수구적 세력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따라서 민족민주운동 이외의 여타 운동을 그 아래 복속시키거나 배제하는 태도가 아

년 여러 운동이 공존하는 가운데서 창조적인 연대의 탄생 혹은 '접합'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3

이와 함께 계층적으로 중산층 연령으로 보면 기성세대도 반성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중산층은 1987년 민주화의 물결 속에 넥타이 메고 군중 속에 한번 휩쓸렸던 것으로 자신들이 한국 민주화의 주역이라고 착각하고 있으며, 그 이후 노동 계급의 요구와 학생들의 민족화해에 관한 주장을 냉정하게 외면해 버렸다. 오도넬이라는 정치학자의 '중산층의 변덕스러움'에 대한 지적이 우리 사회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비록 나이 어린 학생들이지만 그들의 주장에 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한 총련을 비판하지만 중산층의 민족화해에 관한 대안은 무엇인가? 중산층은 무의식 속에서 한총련을 미워하는 것이 곧 통일에 대한 올바른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자기 합리화하는 것은 아닌가? 지적으로 미성숙한 학생들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보는 눈이 필요하다. 물론 애정이라는 것이 무조건 칭찬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조금 달면 삼키고 씹쓸한 것 같으면 뱉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민주화 직후 학생들을 영웅시하다가 학생들이 사회문제를 제기하는 집단이 아니라 가장 큰 사회문제 자체라고 치부해 버리는 태도는 성숙한 시민의 태도가 아니다. 중용을 잃은 태도인 것이다. 훌륭한 시민사회에서 훌륭한 학생운동이 나오는 것 아닐까?

그리고 학생들의 '좌경화'에 관용의 자세

가 필요할 것이다. 세계적인 학자인 립셋, 토플러 등도 청년시절에는 맑스주의자였다. 젊은 세대가 기존의 사회질서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더 나은 사회를 꿈꾼다는 것 자체는 매우 건전한 것이다. 그들이 꿈꾸는 사회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시도와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학생들을 이적행위자로 너무 쉽게 규정하는 사회는 그 사회의 장래에 대한 성찰이 부족한 사회일 것이다.

학생운동은 우리 사회에서 공식적으로는 잘 시행되지 않는 정치사회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스스로 의사를 형성하고 갈등하고 타협하고 합의하는 법을 배우며 또 시민으로서의 저항권의 중요성을 인식해 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과외다, 학원이다 하며 입시 준비에 찌들리며 민주시민이 되는 길에 대해 생각해보지 못했던 학생들에게 학생운동 혹은 학생의 정치적 의사형성과 저항에 대한 관심은 개인의 시민으로서의 성숙과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위해 바람직한 것이라 생각한다. 마치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가 실수하고 서툰 것처럼 학생들도 마찬가지이며, 이에 대한 사회 성원의 인내가 필요하다.

위에서 지적했듯이, 학생운동의 쇠퇴 이유가 학생운동권 내부에만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우리 사회 자체가 점점 치열해지는 경쟁사회로, 그리고 모든 개혁세력과 기성세대에 대한 환멸만을 가져다주는 분위기도 일조했을 것이다. 필자는 '80년대 중반 미국 대학에서 한국과 너무도 다른 캠퍼스 분위기에 놀랐다. 학생시위를 구조적으로 차단한 분산적 건물구도가 마련한 공간 위에 연애, 아르바이트, 학점이 관심의 전부인 학

생들.... 이것이 한국 대학의 미래가 아니길 바랐다.

그러나 위에서 제시한 학생운동에 대한 새로운 방향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필자의 10여 년 전의 추측이 기우만은 아니라는 불안한 예감이 든다. 우리는 머지 않아 빼곡이 들어있는 패스트푸드점과 재즈카페로 갈끔하게 단장된 불황을 모르는 캠퍼스 앞 거리에 서서 지극히 개인적인 삶에 분주한 대학생들의 뒷모습에서 고문치사는 아닐지라도 투석과 화염병 투척을 해대며 뭔가를 열심히 외치던 과거의 대학생들을 차라리 그

리워할지도 모를 일이다. 거대담론과 생활정치를 조화해 가는 창조적인 학생운동에 가너린 희망을 걸어본다. ■

정철희/연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뉴욕 주립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연구원을 거쳐 현재는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 저서로 *Structure, Culture, and Mobilization: The Origins of June Uprising in S. Korea*가 있고, "한국 민주화운동의 사회적 기원", "포스트맑스주의와 한국사회연구", "A Paradigm Shift in Cultural Marxism" 외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